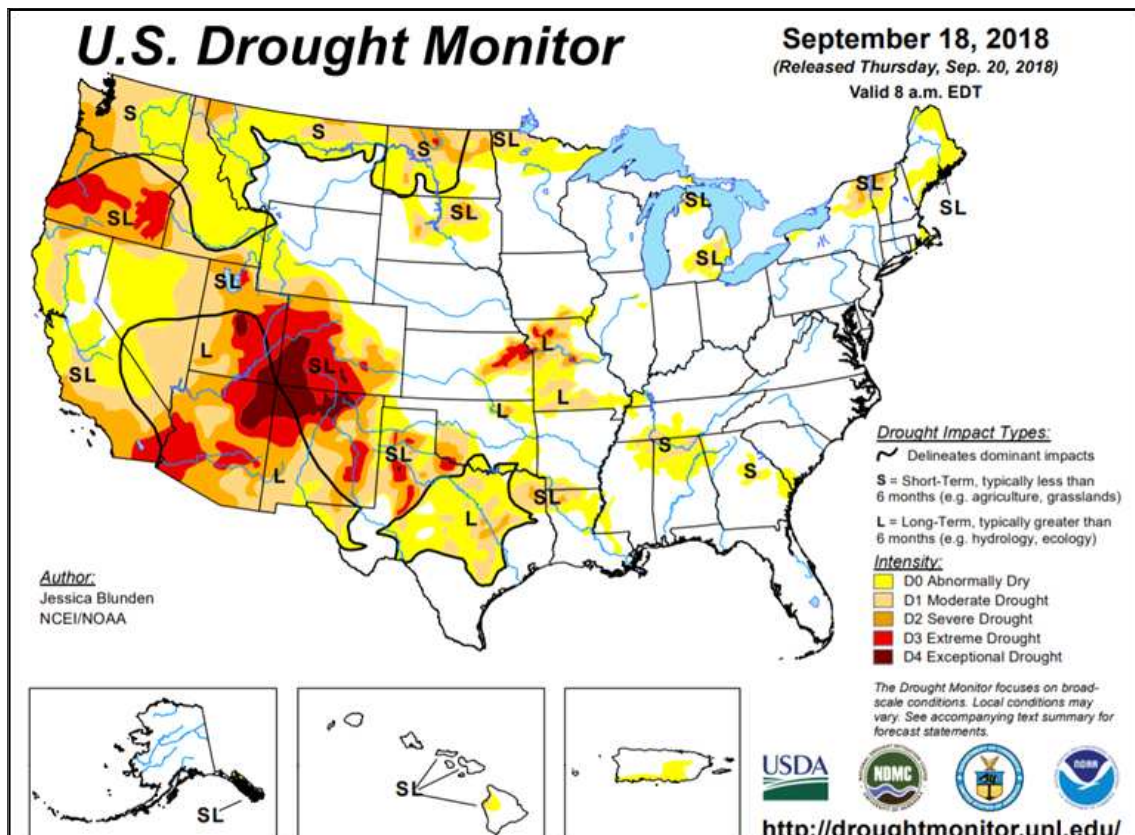


9월 2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39)

□ 미국 기후 현황(9/23~9/29)

남부와 동부 일대에서는 소나가기 한두 차례 내렸다. 걸프만 연안 서부 지역에서부터 뉴 잉글랜드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4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고, 비로 인해 농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열대성 저기압 Nineteen-E가 소멸되고 남은 비구름이 차가운 저기압과 만나면서 남중부 일대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남동부 평원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 간 4~8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고, 로키산맥 남부에서부터 테네시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다.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도 곳에 따라서 4인치가 넘는 비가 내렸고, 아이오와 북서부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려 농작업이 중단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피해도 발생했다.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에서도 허리케인 Florence가 빠져나가는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렸다. 한편, 남서부와 중부 평원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 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이상 높았고, 동부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도 기온이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부터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다소 낮았다.



□ 농업 현황 요약(9/17~9/23)

태평양 연안 북서부 및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이다호, 몬타나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다소 낮은 한주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중부와 동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했지만,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는 허리케인 Florence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9/16~9/22)

■ 유럽: 프랑스 중부와 북부에서부터 폴란드 북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이번에 내린 비의 양은 2~10mm 내외였지만, 이번 비는 이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뭄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60일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10~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2°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용수 공급에 주의가 요구된다. 아일랜드, 영국, 스칸디나 반도 일대에서는 허리케인 Helene의 영향으로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한편, 남동부 유럽 일대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이탈리아와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곳에 따라서 10~6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서부와 남부 일대에서는 10~7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러시아 남부의 Volga 지구 일대에서도 비가 조금 내렸지만 양은 5mm 미만으로 적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등에서는 맑은 가운데 기온이 평년보다 6°C 정도 높은 더운 날씨를 보였다.

■ 동아시아: 초대형 태풍 Mangkhut가 중국 남부 해안에 9월 16일 상륙하면서 이 지역 곳곳에서는 산사태가 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많은 지역에서 80~300mm 내외의 비가 쏟아졌고,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다. 중국 동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한반도 북부와 일본 북부 등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한반도 남부 및 일본 남부에서는 곳에 따라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호주: 주요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서호주와 호주 남부 일대에서는 최근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수확량 전망은 밝은 편이다. 빅토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 일대에서는 가뭄이 이어지면서 작물의 생육 상황도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주요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2°C 정도 낮았고,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밤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 아르헨티나: 중부의 Buenos Aires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Cordoba 남부에서부터 Entre Rio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5~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한편, La Pampa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Cordoba 남부 일대에서는 지난 한주간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내리는 더운 날씨를 보였다. 북부 일대에서도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40°C까지 오르기도 했다.



■ 브라질: Mato Grosso 동부에서부터 Rio Grande do Sul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Minas Gerais까지 확대되었으며 특히 개화기를 앞둔 커피의 생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17일 기준 밀의 수확률은 11%를 기록했고, 대두와 옥수수의 파종률은 각각 9%, 3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부의 주요 농업지역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